정보

개요
곡명: Symphony No. 3 in C minor, Op. 44
작곡가: Sergei Prokofiev (1891–1953)
장르: 4악장 교향곡
작곡: 1928년 여름
원천: 미공연 오페라 The Fiery Angel, Op. 37의 음악 재료를 교향곡 형식으로 재조직 헌정: Nikolai Myaskovsky
초연: 1929년 5월 17일 파리, Orchestre Symphonique de Paris, Pierre Monteux 지휘
소요 시간: 약 35분
작품 범위: 오페라의 동기와 음향을 네 악장의 독립적인 교향곡 논리로 다시 배열한 전곡

IMSLP: Symphony No. 3, Op. 44 (Prokofiev)

Wikipedia: Symphony No. 3 (Prokofiev)

Sergei Prokofiev의 제 3번 교향곡은 무대에 오르지 못한 오페라 The Fiery Angel의 음악을 새로운 형식으로 살려 낸 작품이다. 오페라의 초자연적 줄거리를 네 악장에 그대로 옮기는 대신, Prokofiev는 인물과 장면에 붙어 있던 선율을 반복 ·충돌 ·확장하는 교향곡의 언어로 바꾸었다. 거대한 화음과 날카로운 현악 글리산도, 종소리와 폭력적인 행진이 한 흐름에 놓이며, 악장마다 오페라의 흔적을 품으면서도 독립적인 긴장 곡선을 만든다.

오페라의 실패와 교향곡의 탄생

The Fiery Angel은 Valery Bryusov의 1908년 소설을 바탕으로 한 초자연적 드라마다. 16세기 독일을
무대로 종교적 히스테리, 마술, 악마의 존재, 사랑과 집착이 얽힌다. Prokofiev는 1919년부터 1927년까지 오페라를 완성했지만 , Berlin State Opera를 포함한 제작 계획이 계속 미뤄져 1953년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무대에 오르지 못했다. 이 오페라는 1955년 Venice에서 사후 초연되었다 .

1928년 파리에서 오페라 제 2막의 축약 콘서트가 열리자 Prokofiev는 미공연 음악을 더 많은 청중에게 들려줄 방법을 다시 생각했다. 동료 작곡가 Nikolai Myaskovsky는 오페라의 재료가 교향곡 형식에 잘 맞는다고 보았다. Prokofiev는 장면을 이어 붙인 모음곡 대신, 재료의 극적 압력을 네 악장의 진행으로 재배치했다 . 그래서 제 3번은 오페라의 대체 무대가 아니라, 오페라에서 나온 음악이 교향곡으로 새로 태어난 결과다.

초연 ·출판 ·헌정

Pierre Monteux가 1929년 5월 17일 파리의 Orchestre Symphonique de Paris를 지휘해 세계 초연을 맡았다. Prokofiev는 이 작품을 Myaskovsky에게 헌정했다. 1931년 Paris의 Editions Russes de Musique 에서 초판이 발행되었고 , 후대 Boosey & Hawkes와 Moscow 수집판이 다른 출판 경로로 이어졌다. IMSLP는 작품 번호를 Op. 44, 조성을 C minor, 악장을 네 부분으로 기록한다.

초연 직후 반응은 엇갈렸다. 격렬하고 혼란스러운 음향을 과도하게 거칠다고 본 평도 있었고, 오페라의
무대성이 교향곡의 집중력으로 바뀌었다고 평가한 관점도 있었다. Prokofiev는 스스로 이 교향곡을 중요한 성취로 여겼으며, 오페라에서 나온 음악이라는 사실이 교향곡의 독립성을 약화시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.

소요 시간

공연 시간은 대략 33분에서 36분 사이이며, San Francisco Symphony와 IMSLP는 약 35분을 대표값으로 제시한다. Hyperion의 London Symphony Orchestra·Gianandrea Noseda 녹음은 1악장 14분 1초, 2악장 6분 36초, 3악장 8분 16초, 4악장 6분 31초로 모두 35분 24초다. 악장 사이의 템포 대비와 제 4악장의 행진을 얼마나 압축하는지에 따라 몇 분의 차이가 난다.

편성

피콜로, 플루트 2, 오보에 2, 잉글리시 호른, 클라리넷 2, 베이스 클라리넷, 바순 2, 콘트라바순 , 호른 4, 트럼펫 3, 트롬본 3, 튜바, 팀파니가 기본을 이룬다. 타악기에는 작은북, 탬버린, 큰북, 심벌즈, 캐스터네츠 , 벨, 탐탐이 포함되고, 하프 2와 현악 5부가 더해진다. 이 편성은 20세기 초 대규모 관현악의 힘을 쓰면서도, 베이스
클라리넷과 콘트라바순의 어두운 음역, 하프와 벨의 비현실적인 빛, 세분된 현악의 거친 표면을 한 악장 안에서 교차시킨다 .

관현악은 오페라의 인물을 성악으로 재현하지 않는다. 호른이 넓게 펼치는 제 1악장의 주제는 Renata의
긴장과 연결될 수 있고, 현악의 코랄은 수녀원 장면의 기억을 불러오지만 , 교향곡 안에서는 선율이 독자적인 동기망으로 작동한다. 제 3악장의 13분할 현악 글리산도와 제 4악장의 종소리는 장면을 설명하는 효과음보다 , 소리 자체가 불안을 만드는 작곡적 장치에 가깝다.

네 악장의 진행

I. Moderato

첫 악장은 폭발적인 호출과 반복음으로 시작한다. 넓게 휘어지는 호른과 현악의 선율이 한쪽에서 공간을 열면, 짧고 공격적인 동기가 그 틈을 파고든다. San Francisco Symphony와 Hyperion의 해설은 이 주제를
오페라의 주인공 Renata와, 그녀를 구하려는 기사 Ruprecht의 음악적 흔적으로 설명한다. 결투 장면에서
가져온 발전부와 Renata의 불안한 리듬이 서로를 밀어붙이며 , 오페라의 감정적 압력이 교향곡의 첫 장기
호흡이 된다.

선율은 서정적인 순간에도 안정을 얻지 못한다. 호른의 넓은 호흡이 현악의 집요한 반복과 만나고, 금관의
거대한 화음이 다시 전체를 끌어당긴다 . 오페라의 특정 장면을 시간순으로 재현하기보다 , 사랑 ·공포 ·집착이 같은 주제 안에서 서로를 덮는 방식이 이 악장의 형식을 만든다.

II. Andante–Poco più mosso–Largo

Renata . 1 . , . *Poco più mosso* , *Largo* .

. .

III. Allegro agitato–Allegretto

13 . London Symphony Orchestra . Renata , .

Allegretto . . , . .

IV. Andante mosso–Allegro moderato

. , 2 . 1 3 . , .

Renata . . , , .

[illegible]

Prokofiev . Renata, Ruprecht, , , , , .

3 . 3 . 1 , 4 .

Prokofiev “The Fiery Angel” .
, 3 .

Prokofiev

Prokofiev . LSO .
·, , Sviatoslav Richter
“” .

3 13 4 , , Prokofiev
.

Barbican

1929 , , Prokofiev .

London Symphony Orchestra Gianandrea Noseda LSO Live 2023 4 Barbican
2024 3 , 35 24 . Hyperion , 13 , , .
, , .

- San Francisco Symphony : 1928 , *The Fiery Angel* , 1929 Monteux , , , 35 .
- London Symphony Orchestra : 13 , , , , .
- Hyperion Records, : Bryusov *The Fiery Angel* , 1928 , , Myaskovsky , , Prokofiev .
- Hyperion Records, LSO Live·Noseda : 2023 Barbican , 2024 , , 35 24 , Andrew Mellor .
- IMSLP, Symphony No. 3, Op. 44: C minor·Op. 44, , 1929 , 1931 Editions Russes de Musique .

Sviatoslav Richter 회고를 포함한 LSO Live 해설: 작품의 충격을 “종말 ”처럼 느꼈다는 동료의 반응과 교향곡으로의 재탄생에 관한 출판사 자료.

Revision #1
Created 2026-10-04 10:08:43 UTC by 안준영
Updated 2026-10-04 10:08:44 UTC by 안준영